

# 동성애와 사상

성정치 - 성혁명 이론의 실현



한 어린이가 자신의 가정교사와 어머니의 불륜현장을 목격한다.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다. 이 어린이는 성장하여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세상에 내놓는 학자가 된다.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이다. 라이히 본인도 자신의 이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이론들은 EBS에서 자위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청소년 인권’을 위한 교육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정당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아수나로’라는 단체가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모텔을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멋진 학술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빌헬름 라이히의 이론을 가감 없이 다루어 보겠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정책연구원(ELI) 원장이다.

## ① 라이히가 지적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문제점

**마르크스**는 생산관계와 사용가치·교환가치의 개념을 통해 노동의 억압과 착취를 설명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비판적 분석은 자본주의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사실상 세계관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한계를 드러내는데, 바로 프로이트가 탁월하게 성취한 인간에 대한 분석을 빠뜨린 것이었다.

마르크스-엔겔스가 분석한 노동을 통한 착취 구조를 이해하고 각성한 인간은 혁명으로 나아간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반드시 해방의 길로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치과정을 과도기(이행기)로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와 법이 사멸된 (법고사론) 이상적 공산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인간은 각종 열등감이나 왜곡된 감정에 의해 상황을 판단하고 감추어진 억압으로 얼룩진 무의식이 지배하는 비합리적 존재이다. 엔겔스는 '가족'을 단지 출산을 통한 사회성원의 생산 단위로만 인식했다. 가족제도의 이면에는 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바로 이 점을 간과한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는 신경증(노이로제)과 그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성억압'을 포착했다. 사실 마르크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프로이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성적 금기와 성윤리의 규범들의 해악을 알면서도 프로이트는 치료를 위해 성충동을 진술할 뿐 실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의 비판도 마르크제와 큰 틀에서는 맥락이 유사하지만 더 상세하게 프로이트를 비판하고 대

안을 제시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병적 심리와 각종 반사회적 성충동(강간이나 근친상간의 충동)이 신경증과 불안 증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성도덕을 기초로 한 문화의 형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 문화의 생성과 발전은 성충동의 억압과정과 관련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상상하고 말하지만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치료에 집중한다. 라이히가 발견한 프로이트의 한계는 바로 프로이트가 심리적 분석에 천착한 나머지 마르크스가 성취한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점이었다. 라이히는 프로이트를 뛰어넘어 성도덕과 성억압의 기제를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충동과 성욕구를 부정하는 교육이 행해지는 사회의 구조와 도덕, 특히 성을 억압하는 기독교 윤리의 지배적 위치를 분석해 낸다. 일부일처제와 성도덕의 억압은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형성해 성적 억압과 착취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억압구조가 정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심리치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는 이러한 차원에서 프로이트의 기존 이론을 비판하고,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성도덕'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사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을 강화시켰고, 인간의 성충동을 연구한 프로이트는 오히려 성충동을 더 억압하게 했다는 비판을 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실현시켜주어야 한다는 좌파이론의 원조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이다.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한국

의 좌파세력들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면 이를 실현하고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 인권조례 등을 통해 라이히의 성정치와 성혁명을 실현하려 드는 것이다.

## ② 성경제학

라이히는 마르크스주의의 탁월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프로이트의 인간 정신에 관한 분석의 장점을 결합시켜 ‘성경제학’이란 개념을 내놓는다. 노동력의 억압과 착취 구조에 대비해 ‘성욕구’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와 일부일처제는 기독교라는 지배적 윤리·도덕과 관계되고 성에 대한 도덕적 억압과 통제는 가족,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데 관계된다.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당할 가장은 가부장제-일부일처제 가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가장은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여 이 가정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가정이 기본단위가 되어 부르주아들의 지배체제인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부일처제의 ‘성억압’을 받아들이는데 이 때 윤리적 기능을 교회가 강화시킨다. 교회는 간통과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금기시하는 악의 뿌리인 것이다. 교회와 결합한 자본주의는 산업 질서에 맞는 가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착취당할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고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오르가즘을 모르고 가정에 충실한 억압적 부모를 만들어 내게 된다.

두 가지 측면을 상상해 보자. 첫째 문화인류학의 발달로 오지의 한 부족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모르고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적 억압이 없고 신경증도 없다. 집단 성관계를 비롯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도 잘 살고 있다. 일부일처제나 가부장제도가 없어도 오히려 자

유롭게 살고 있다. 둘째 일부일처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상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파트너를 발견하면 일부일처제의 형식처럼 둘만의 파트너십을 갖는다. 파트너를 찾기 위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최적의 만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성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일부일처제를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라이히에게 일부일처제는 이상적 성적 파트너를 구했을 때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법으로 통제되거나 국가가 개입해서 결혼과 가정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력 착취와 성 착취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결혼과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이론으로 나아간다.

## ③ 노동민주주의

성경제학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보자. 성욕구가 억압된 상태로 공장에서 일한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비좁은 다세대 주택에 노모와 아이들이 함께 산다. 배우자는 성욕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 주택의 특성상 자유롭게 성욕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 자본주의의 노동력 착취 속에서 성욕도 억압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독교 윤리는 간통이나 성매매를 금기시한다. 성적으로 일탈했을 때 죄책감이 생긴다. 이 죄책감 때문에 신경증이 생기고 성기능이 저하된다. 기독교윤리에 억압된 성욕은 국가와 자본에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문화의 체제에 복종시키고 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성도덕을 부정해야 한다.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체제에 저항해야 한다.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개인이

더 나은 노동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로서 착취당하지 않는 해방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성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유롭게 자치적인 노동자가 된다. 행정조직이나 행정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행정을 소멸시킨다. 진정한 '자치'를 이루고 노동민주주의를 성취한다. 한국의 좌파들이 학교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탐닉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도 바로 빌헬름 라이히에 기인한다. 다음 세대와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퇴폐적 사상이다.

#### ④ 급진적 성정치(Sex Pol)

이러한 노동민주주의의 성취는 모든 억압적 성 도덕을 부정하는 '성혁명'으로 이룩된다. 오르가즘이 충만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주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자본주의의 착취가 없는 일터에서 상승된 노동력으로 즐겁게 일한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인간은 반사회적 성충동이 약화되고 신경증에 걸리지도 않는다. 기독교, 자본주의, 근대적 국가, 억압적 문화가 만든 체제 속에서 인간은 성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해방은 성해방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이히 이전까지 '성'은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정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의식'과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성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사적인 '성'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선구자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이다. 이러한 성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가 바로 성정치이다.

이제 우리는 성정치가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를 넘어 공교육 체계 내에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성정치-성혁명의 실현이 성윤리의 해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단순히 수구세력의 기우 정도로만 취급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서구사회가 이미 겪은 혼란과 성윤리 해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는 지혜롭게 숙고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빌헬름 라이히**

(Wilhelm Reich, 1897.3.24 ~ 1957.11.3)

오스트리아의 성과학자